

발광하는 도시의 빛, 그 이중성 '욕망과 허무'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루미너스 시티'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은 기획초대전으로 '정정주 ; Luminous City'를 오는 8월 4일까지 연다. 전시는 G.MAP 제1전시실과 외벽 미디어파사드월, 텔레포트라운지에서 펼쳐진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의 창작자 전시지원의 취지로 진행되는 이번 초대전은 광주·전남 출신 미디어 아티스트의 작품세계를 조명해 장르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난 2022년부터 마련됐다.

광주 출신 미디어 아티스트 정정주는 건축공간과 장소에서 영감을 받은 다양한 형식의 작품을 선보였다. 정 작가는 빛과 시선, 공간의 상호작용을 내용으로 한 조형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그는 30여 년간 꾸준히 빛에 집중하며, 빛을 매개로 시선의 힘을 전복하고 심리적 관계를 재구성하는 데에 작업의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정정주는 빛 경험의 양가적 특질을 이야기한다. 'Luminous City(루미너스 시티)'라는 주제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발광하는 인공의 빛은 신자유주의 속 도시의 욕망과 함께 허무의 감정을 드러낸다. 종교적 초월성과 도시 문명의 스펙터클, 자연과 인공, 희망과 허무, 정신계와 물질계, 시각과 촉각 등 빛이 지니는 상반된 성질들이 본 전시 작품

8월 4일까지 정정주 개인전 빛의 촉각적 느낌 연출 눈길 10주년 특별전 등 동시 진행 22일 잔디광장서 통합 개막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특히 작업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는 '장소와 빛, 시점'은 작가의 독일 유학 시기의 빛에 대한 경험에서 비롯됐다. 당시 자신의 방안을 비추는 태양 빛이 파스함과 부드러운 성질을 넘어, 어느 순간 마치 거인의 허가 내 작은 방을 훑고 지나가는 것과 같은 공포와 촉각적인 괴리감을 안겨줬던 일은 정신성과 물리적 세계에 걸쳐 있는 빛의 이중성에 대한 천착으로 이어졌다.

이번 전시에서 정정주는 유학 시절 빛이 줬던 두려움과 같이 타인을 비롯한 외부세계에서 받은 자극이나 상처에 대해 반응하는 행동들과 함께, 역으로 외부를 향한 시선을 빛으로써 교차시킨다. 작가가 이번 전시에서 언급하는 '빛의 경험'이란 단순히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빛이 아닌, 보는 것과 보이는 것, 혹은 작품의 경험자와 작품 간의 교감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 활동과 같다.



정정주 작 Luminous City(루미너스 시티).

G.MAP 제공

작품들에서 보이는 빛의 왜곡이나 전시실 전 공간을 훑고 지나가는 듯한 빛의 촉각적인 느낌은 일종의 환영으로서 관람자를 전시 공간 전체로 끌어들이는다.

정정주(1970~)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하고, 2002년 독일 뒤셀도르프 콘스트아카데미에서 후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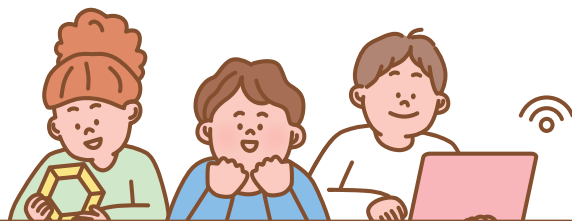
트 키콜 교수를 사사하며 마이스터슐러를 취득했다. 작가는 2000년부터 서울, 독일, 일본, 중국,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에서 24회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미래는 지금이다(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예술의 열선(Thermorcline of Art-New Asian Waves/독일 ZKM)' 등 국내외

다수의 기획전시에 참여했다. 2021 CJ문화재단 지원작가, 2020 독일 하우스 데어 쿤스트 엔니거(Haus der Kunst Enniger) 레지던시 입주 작가, 2010 김종영 미술상, 2003년 광주신세계 미술제 미술상을 수상했으며, 2009 금천예술공장, 2006 국립고양미술장작 스튜디오, 2003년 쌈지스페이스 레지던시 등에 참여했다. 현재 성신여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이번 광주에서의 기획초대전은 2005년 광주신세계갤러리 전시 이후 19년 만의 개인전이다.

이경호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센터장은 "정정주의 작업은 예술생산자와 향유자의 감정 및 경험에 기반한 상호소통의 산물로 나아가기 위한 빛의 예술이다"며 "이번 초대전이 작업의 변곡점에 선 중진 미디어 아티스트의 예술세계를 보다 현장감 있게 체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G.MAP은 미디어아트 기획전시로 '실감콘텐츠전 너머의 세계'를 지난 10일부터 G.MAP 제4전시실에서 선보이고 있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10주년 특별전의 일환으로 '헤테로포니: 10년의 연주'를 오는 21일부터 G.MAP 제2-3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정정주 초대전을 포함한 세 전시는 모두 올해 8월 4일까지 진행되며, 세 기획전시의 통합 개막식은 오는 22일 오후 5시 G.MAP 야외 잔디광장에서 개최한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광주과학발명 페스티벌' 광파르

18~19일 국립광주과학관 창의발명마당 등 67종 체험 특별강연·매직쇼 공연 다채

국립광주과학관은 이달 18일부터 19일까지 광주시, 광주과학문화협회와 함께 '2024 광주과학발명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페스티벌은 '과학과 발명으로 만나는 에너지 세상'을 주제로 펼쳐진다. 과학관 야외광장을 중심으로 창의발명마당, 친환경에너지마당, 미래상상마당, 기초과학마당, 과학나눔마당 등 7개 마당 67종의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에는 전시관(상설전시관·어린이과학관·인공지능관)을 무료로 개관한다.

창의발명마당에서는 우주왕복선 풍향풍속계, 물로 소리를 만드는 팬 플루트 등 STEAM 융합체험을 즐길 수 있다.

미래상상마당에서는 내 목소리로 운전하는 인공지능, 나만의 로봇으로 씨름하기 등 첨단 과학기술을 배워볼 수 있다.

국립광주과학관이 지원하는 10개의 인공지능 탐구활동 동아리 홍보부스도 함께 운영된다.

페스티벌 연계 특별강연으로는 한국세라믹기술원 신태호 단장의 '우주시대와 수소시대를 여는 세라믹과 전기화학 이야기'를 주제로 한 '금요일에 과학터치' (18일, 오후 1시 30분)와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김종성 교수의 '세계자연유산 한국 갯벌의 가치'를 주제로 한 '수요일엔 바다톡톡' (19일, 오후 2시)이 있다.

이들간 특별한 공연 프로그램도 있다. 국립광주과학관 발명의 날 기념 사이언스매직쇼(18일, 오전 11시)가 분관 상상홀에서 펼쳐지며, 과학 래퍼 '광어(Flatfish)' 등 3인의 특별한 버스킹 공연 (19일, 오후 1시)이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된다.

페스티벌 야외부스 체험프로그램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페스티벌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클래식 색소폰의 세계... 브랜든 콰르텟 공연

22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GAC(Gwangju Arts Center) 기획공연 포커스로 브랜든 콰르텟 공연이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2024 기획공연 포커스(Focus)는 예술의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며 문화적 만남을 주선한다.

브랜든 최(사진)는 프랑스 리옹 국립 음악원에서 최고 연주자과정을 졸업했고 미국 신시내티 음대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 석사학위를, 동 대학원에서 최연소 나이로 박사학위(D.M.A)를 받았다. 미국 신시내티 컴피션 1위, 한국 음악 협회 콩쿠르 1위 등 수많은 국제 및 국내 콩쿠르들에서 우승을 거두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미국 신시내티 오케스트라 및 KBS 교향악단, 수원시향, 인천시향, 광주시향, 과천시향, 창원시향, 천안시향 등 다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클래식 색소폰 콘체르토를 국내 초연하기도 했다.

국내에는 물론, 유럽과 미국 및 전 세계의 무대에서 클래식 색소폰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클래식 색소포니스트 브랜든 최는 이번 공연에서 'Moon River(문 리버)', 'Si tu vois ma mere(시투 부아 마메)', '사랑하기 때문에', 'Libertango(리베르탕고)' 등 클래식과 더불어 관객들에게 친숙한 곡을 선보인다. 연주는 색소폰 브랜든 최, 피아노 최문석, 더블베이스 김종호, 드럼 조한샘이 참여한다. **도선인 기자**



ACC재단, 관객 참여 '차차차원이 다다른 차원' 공연

내달 21~23일 극장1 '행복한 이색 장례식'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관객 참여형 뮤지컬 '차차차원이 다다른 차원'을 6월 21~23일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선보인다.

'차차차원이 다다른 차원'은 단순히 보거나 듣는 관람 형태를 넘어 객석과 무대

구분 없이 관객과 배우가 만들어가는 이머시브형 뮤지컬 공연이다.

이승과 저승 사이 '차차차원의 틈'으로 소환된 4명의 영혼들은 이승의 마지막 기억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된 장례식이라는 사실을 떠올린다. 이에 가까워들은 4명의 영혼들을 도와 마지막 기억을 다시 만들어보기로 한다.

하지만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온 이들이 함께 장례식을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

다. 관객들은 이색 장례식의 조문객이 되어 배우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며 극을 만들어간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문화취약계층이 직접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터치투어'도 진행된다. '터치투어'는 공연 1시간 전, 시각 장애인들이 공연 형식과 캐릭터 무대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해설과 움직임 워크숍으로 진행된다. **도선인 기자**